

회 의 록

회의명	2019학년도 군산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개최일시	2019. 1. 11(금) 14:00	장 소	대학본부 제1소회의실
출석현황	<p>○ 출석자 : 등록금심의위원회위원 9명 중 8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위원 : 이○미, 한○수, 천○경 - 학생 위원 : 이○준, 이○연, 박○민 - 동문 위원 : 조○란 - 관련 전문가 : 김○현 		
안 건	<p>1.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p> <p>2.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p>		
주요내용 및 심의결과	<p>1.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처장 이○미 교직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p>2.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 0.05%인하 - 대학원 : 동결 		

<등록금심의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요약>

- 간 사 :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위한 군산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시작 일림, 출석위원 소개 및 인사말씀
군산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교직원 위원 중에서 추천 의견 물음.
- 천○경 위원 : 학생업무 총괄 해주시는 학생처장 이○미 위원을 추천함.
- 전 체 위 원 : 학생처장 이○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동의함.
- 간 사 : 만장일치로 학생처장 이○미 위원이 군산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리고 (회의 성원보고) 군산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총 인원 9명중 8명 출석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거 성원됨을 보고함.
- 위 원 장 : 인사말씀 및 개회 선언
- 위 원 장 : 간사에게 회의자료 설명을 요청함.
- 간 사 : 회의자료 설명
- 위 원 장 : 학부 등록금 0.05% 인하, 대학원 등록금 동결하는 (안)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 요청함.
- 한○수 위원 : 학부 등록금을 0.05% 인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함.
- 천○경 위원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고시를 통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을 제시해줌. 올해 법정 상한선은 2.25%임. 이 상한선 이하로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인상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을 비롯한 각종 국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입장에서는 사실상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는 구조임. 올해도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를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을 가정하고 평균등록금을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학교 전체 평균등록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학교 전체 평균등록금이 올라가더라도 정보공시 상 모든 계열별 평균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되지만 회의자료 5쪽에서 보시다시피 우리학교는 시뮬레이션 결과 등록금을 동결해도 학교 전체 평균등록금은 물론 4개 계열 중 예체능 계열에서 200원 인상되는 것으로 계산됨. 따라서 등록금을 동결하게 되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참여 할 수 없게 되므로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를 위한 평균등록금을 계산하여 최소한의 인하율을 결정하게 되었음.

□ 이○준 위원 : 등록금 동결도 사실상 힘들다는 뜻인지 물음.

□ 천○경 위원 : 우리학교는 10년째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고 있고 계속되는 편제정원 축소에 따른 등록금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학교 재정이 매우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려야겠지만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기존 장학금 수혜를 받아온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폭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안)을 제시하게 됨.

□ 한○수 위원 :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등록금을 인하하게 되면 재정이 많이 어려울 것임. 한편에서는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유익한 사업을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기도 함.

□ 이○준 위원 : 2017학년도 등록금 심의 당시 학생측에서도 그렇게 주장했었음. 혹시 지난해에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없었는지 질문함.

□ 천○경 위원 : 국립대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를 비롯한 각종 국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에서도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등록금을 인상하기란 쉽지 않을 것임. 현재 재무과에서는 2019학년도 예산 편성 중에 있음.

경직성 경비를 빼고 순수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은 너무나 적고 각 부서 예산 요구액을 이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를 위해 등록금 인하(안)을 제시한 것임.

□ 위 원 장 : 재무과장님이 너무나 수고가 많으심. 사실 학교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많은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차라리 등록금을 올리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사실상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를 위해 제시된 (안)처럼 등록금을 소폭으로 인하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어 보임. 추가로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음.

□ 이○준 위원 : 더 이상 등록금 인상, 인하는 논의할 필요가 없어 보임. 대신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좋겠음.

□ 천○경 위원 : 등록금 수입규모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됨.




이런 부족한 예산은 사실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지원사업을 따옴으로서 일정 부분 보전 할 수 있음. 작년에도 학생들을 비롯한 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국립대학육성사업에 선정되어 14억의 예산을 확보했음. 재정지원사업비는 쓸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사업비가 학교에 내려오는 시기가 5월 내지 6월 정도라는 점이 아쉬운 점이지만 부족한 예산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준 위원 : 학생회 입장에서든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러한 재정지원사업 신청 시 학교 구성원으로서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임.

□ 위 원 장 : 좋은 말씀 감사함. 다른 위원들 의견 요청함.

- 김○현 위원 :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예전에도 참석해 보았지만 지금과 같이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음. 예전에는 매년 등록금이 인상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학생측과 학교측이 인상률을 두고 갈등이 심했었음.
매년 최소 물가상승률만큼은 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국가정책 상 등록금 인상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제시된 (안)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임.
- 조○란 위원 :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른 부족한 예산이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 보전될 수 있을 거란 방안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러한 방안과는 별도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함께 하길 바람.
- 위 원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관계로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로 함.
학부 등록금 0.05% 인하,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하는 원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고 원안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함.
- 위 원 들 : 모두 동의함.
- 위 원 장 : 2019학년도 등록금을 학부는 전년대비 0.05% 인하, 대학원은 동결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의결함을 선언함 (폐회 선언)

2019. 1. 11.

- 위 원 장 : 이 성 미 
- 확 인 자 : 천 미 경 
- 간 사 : 이 승 민 
- 기 록 자 : 김 현 정 